

제68차 IFLA 총회 및 컨퍼런스 참관기

이 나 나*

국제도서관협회연맹 컨퍼런스는 각국의 사서들이 참가하는, 도서관계의 가장 큰 행사 중 하나이다. 제68차 IFLA 컨퍼런스는 스코틀랜드의 글래스고에서 'Libraries for Life: Democracy, Diversity, Delivery' 라는 주제 아래 열렸다.

우리 일행은 전체 일정 중 8월 19일에서 22일까지의 프로그램에 참가하여, 150여 개의 세미나 및 워크숍, 200여 개의 전시와 함께 다양한 문화행사를 경험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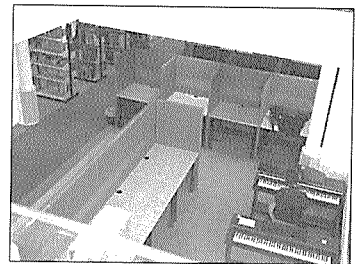
- ▶ '전자자원의 평가' 를 주제로 열린 수서 및 장서관리 워크숍의 논의는 최근에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학술DB 및 전자저널의 구독 관련 논의와도 많은 관련이 있었다.
- 전자저널 및 학술DB 공급자가 제공하는 이용통계의 한계와 함께, 이용통계를 분석하여 전자저널의 가격모델을 바꾸거나 학술DB의 동시이용자수를 조정할 예정대 도서관의 사례가 소개되었다. 이 세션에서는 발표내용 뿐만 아니라, 참석한 사서들의 토론이 흥미로웠는데, 전자자원을 구독하는 각 도서관에서 느끼는 어려움이 국내 도서관에서 느끼는 바와 비슷함을 알 수 있었다.
- 핀란드의 국가전자도서관 프로젝트(FinELiB)와 브라질의 전자도서관프로그램등 국가 단위로 이루어지는 컨소시엄이 소개되었다.
- 전환기 국가들의 '국가간' 컨소시엄인 eIFL(Electronic Information for Libraries)을 통해 전자자원을 효율적으로 구독하고 이용을 활성화하려는 사서들의 노력이 소개되었다.
- ▶ 대학도서관 경영 및 마케팅 세미나에서는 대학도서관에서 변화가 직원들에게 미치는 영향, 도서관에서 나아갈 바 등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특히 많은 참석자들의 호응을 받았던 것은 텍사스대학 도서관의 사례로,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사서와 관리자의 역할이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가, 전통적인 역할과는 어떻게 접목시켜야 하는가 등을 도서관장과 사서의 입장에서 각각 조명해 본 발표였다.
- ▶ IFLA 행사 기간 중에는 세미나 및 워크숍과는 별도로 전시회가 열려, 데이터베이스 및 도서관 관련 하드웨어, 소프트웨어가 전시되었고, 영국국가도서관, 스코틀랜드도서관, ALA 등과 같은 여러 기관의 활동을 소개하거나, 베를린,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릴 차기 IFLA 총회를 안내하는 전시대가 마련되어 다양한 볼거리가 되었다.

* 이화여자대학교 중앙도서관

모든 전시대에서 외국의 도서관 관련 소프트웨어 현황 및 기술의 변화 등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지만, 필자에게 특히 흥미로웠던 곳은 OCLC의 온라인참고봉사 소프트웨어인 QuestionPoint와 The Model Children's Library라고 이름 붙여진 행사장이었다. 후자는 CILIP의 아동도서관 그룹을 비롯한 영국 내 여러 기관들이 협력하여, 어린이도서관의 모델을 제시한 것으로, 다양한 어린이도서와 포스터, 어린이들이 편안하게 앉아서 책을 볼 수 있는 카펫과 의자로 꾸며져 있었다. MCL 행사장에는 매일 2 ~ 3회씩 스토리텔링 시간이 있었는데, 스토리텔러와 어린이와의 교감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저절로 웃음이 나오게 하는 즐거운 풍경이었다.

IFLA 컨퍼런스 기간 중 8월 20일은 IFLA 참석자를 위한, 공식적인 도서관 방문 행사가 있었다. 우리 일행이 신청을 할 당시에는 대부분의 도서관에 견학 예약이 끝난 상태여서, 선택할 수 있는 도서관이 많지 않았다. 결국 우리 일행 중 상당수가 택한 방식은 별도의 시간을 내어 예약 없이 도서관을 방문하는 것이었는데, 방문하는 어느 도서관에서도 불편함이 없이 견학을 할 수 있었다.

▶ 글래스고대학 도서관은 2층의 대출실과 단기대출자료실, 3층의 참고실, 신간정기간행물실을 제외하고는, 각 층에 주제 분야별로 자료실(서가)을 두고 구간 정기간행물과 단행본을 함께 배가하고 있는데, 같은 주제의 자료는 인쇄 형태 자료뿐 아니라 마이크로 폼이나 CD-ROM 등의 비도서 형태 자료도 같은 층에서 볼 수 있다. 글래스고대학 도서관에서 특히 인상적이었던 풍경 중 한 가지는, 음악자료 서가 옆에 마련된 A/V 시설에서 헤드폰을 끼고 전자피아노를 연주하고 있는 학생의 모습이었다.



(글래스고 대학 도서관 A/V 시설)

글래스고에서의 IFLA 컨퍼런스 참석은 여러 나라, 여러 도서관에서의 활동과 노력을 볼 수 있어서 즐거웠지만, 짧은 시간 동안이나마 글래스고의 문화를 보고 맘껏 느낄 수 있는 시간이 있어 더욱 즐거웠다. 행사장 건너편에 있는 과학센터에서 바라본 글래스고 전경, 글래스고 대학 도서관 자료실 창가로 펼쳐진 글래스고 시내 풍경, 맥킨토시가 곳곳에 의미를 두어 만들었다는 예술학교(School of Art) 건물을 구석구석 돌며 설명을 들었던 일 등. 또한, 국내외의 서로 다른, 여러 기관에서 참석한 참가자들과 함께 나누었던 대화도 좋은 경험으로 남아있다.

2006년에 우리 나라에서 열릴 IFLA 총회 및 컨퍼런스도 많은 이들에게 기억되는 행사가 되길 기대해 본다.